



전북현대의 이재성(왼쪽)이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0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주 조성환 감독

왔다 갔다에 한나절 허비 외박은 꿈도 못꾸는 제주 조성환 감독 "주어진 환경서 자율성 부여"

K리그 팀들은 숙소 생활을 한다. 주말 경기를 치른 뒤 외박을 나가 치열한 승패의 세계에서 쌓인 피로를 훌훌 털고 온다. 기자들은 외박 때가족들과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 잘 쉬어야 경기 도 잘한다. 피지에서 하는 훈련보다 쉴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오느냐가 팀 성적의 변수다.

제주도를 연고로 하는 제주유나이티드는 지리적 특성상 하루 외박으로는 집에 다녀오기가 어렵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은 최근 주중·주말경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주중경기와 주말경기 간격이 3~4일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팀들은 주말 경기가 끝난 뒤 하루 외박을 주지만, 제주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주중·주말 경기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제주는 외박 없이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여서 외박을 위한 장거리 이동 자체가 큰 부담이다. 제주 조성환(47) 감독은 "주중 경기가 치러지면서 경기 간격이 짧아 선수들이 서울에 다녀올 여유가 없다.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지금 일정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팀 선수들은 여간상 외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선수들에게 '잘 견뎌야한다'고 말만할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피로 여독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제주는 19일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상주상무와의 원정경기를 치렀다. 상주 원정을 위해 18일 오전 훈련을 마친 뒤 서귀포 클럽하우스에서 구단 버스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청주공항으로 이동했다. 청주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상주로 향했다. 오후 한나절을 원정 이동으로 보낸 것이다. 대부분의 팀은 원정경기를 치른 직후 구단 숙소로 돌아오지만, 제주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이마저도 어렵다. 제주는 상주 경기 뒤 호텔에서 하루를 더 묵고 20일 제주도로 향한다. 22일 포항스틸러스와의 홈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다. 주중 경기가 있을 때 외박을 나가기 어려운 이유다.

휴식이 필요한 것은 조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마찬가지다. 그는 "경기에서 졌을 때 아쉬움을 털어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경기 후 매운 음식을 먹거나 경기 다음날 한라산을 등반하면서 마음을 달랠다. 유희에만 한라산 정상은 5번 등반했다"며 웃었다.

정지국 기자 stop@donga.com

인천-성남, 이학민-곽해성 1대1 트레이드 인천유나이티드와 성남FC가 19일 이학민(25)과 곽해성(25)을 맞바꾸는 1대1 트레이드에 합의했다. 수비수 이학민은 2014년 상주대를 나와 경남FC와 부천FC 등에서 활약했다. 101경기 출전해 5득점 8도움을 기록했다. 수비수 곽해성은 2014년 광운대 졸업 후 2014년 성남FC 유니폼을 입고 우측면 수비수로서 활약했다. 3년간 59경기에서 3득점 5도움을 올렸다. 양 팀은 선수 교환을 통해 각각 측면 공격력 강화와 전력 다양화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대구, 호주대표 출신 수비수 프라니치 영입 대구FC가 호주 출신의 수비수 이반 프라니치(30)를 영입했다. 대구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고한 수비력과 공격적인 재능을 모두 갖춘 오른쪽 측면 수비수 프라니치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프라니치는 2015아시아컵 결승전에서 한국과 맞붙어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선수다. 2012년 호주대표팀에 데뷔해 2014브라질월드컵과 2015아시아컵 등을 거치며 A매치 20경기를 소화했다. 호주리그에서 소속팀을 A리그 3차례 우승으로 이끌었다. 프라니치는 "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다. 부상자들을 완벽하면서도 빠르게 회복시키니 의무 팀과 파비오 코치의 부담도 줄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 손길이 닿으니 선수단의 전력누수 기간도 길지 않다"며 활짝 웃었다.

정주 | 남창현 기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10명으로 광주 잡은 전북의 '골 본능'

후반전 2분 동점 상황에서 로페즈 퇴장 김신욱 이동국 동시에 투입해 전방 강화 이재성 이승기 나란히 골...광주에 복수



(22라운드)

"까다롭다. 전방 압박도 강하고, 거칠면서도 많이 뛰다."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은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2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불편한 흐름을 걱정했다. 최 감독은 "광주에 복수"이지만 유독 약체에 약하다.

특히 올 시즌 첫 대결인 4월 광주 원정에서 0-1 충격적인 패배를 맛봤다. 파장은 컸다. 이어진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4로 대패해 2연패 늪에 빠졌다. 15일 울산현대 원정에서

퇴장을 당해 벤치를 지키지 못하게 된 광주 남기일 감독은 "전북은 항상 피하고픈 상대"라면서도 "전체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부분이 아닌, 팀으로 맞설 것"이라고 끈질긴 축구를 예고했다. 뚜껑이 열렸다. 예상대로 전북은 강했다. 출발도 좋았다.

전반 11분 장윤호가 오른쪽 측면에서 띄운 크로스를 에두가 헤딩골로 연결했다. 시즌 7호, '전북 킬러' 광주는 역시 만만치 않았다. 볼 점유율을 높이며 홈 팀을 괴롭혔다. 최 감독이 사전 미팅에서 주문한 "수비진을 벗겨가는 플레이"는 거의 없었다. 거듭 밀리던 전북은 전반 43분 찬스를 잡았다. 중원 한복판에서 흐른 볼을 잡은 에두가 광주 골키퍼 최봉진을 제치고 슛한 것이 골대 맞았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다. 전반 종료직전 주현우의 프리킥을 김민혁이 헤딩 동점골로 연결했다. 1-1에서 맞은 후반전 초반은 광주가 주도했다. 키오프 2분 만에 전북 로페즈가 비신사적인

K리그 클래식 경기결과		▶ 19일	
상주	상주 0 : 3 제주	전주	전북 3 : 1 광주
평창	강원 0 : 1 울산	인천	인천 1 : 5 서울
대구	대구 3 : 0 포항	수원	수원 4 : 1 전남

파울로 퇴장 당했다. 로페즈가 자신에게 파울을 범한 정동윤을 걸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 명백한 파울. 올 시즌 처음으로 외국인 3중사(에두-에멜-로페즈)를 선발 투입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전북의 진짜 '쇼 타임'은 수석 열세에 놓인 순간부터였다. 오히려 볼 소유가 더욱 잘 이뤄졌다. 후반 21분 에두, 에멜을 빼고 김신욱, 이동국을 동시 투입해 전방을 강화한 전북은 9분 뒤 결실을 맺었다.

김진수가 찬 프리킥을 최봉진이 편칭으로 막아내자 이재성이 머리로 텅 빈 골문에 밀어 넣었다. 후반 41분에는 김진수가 띄운 볼을 이동국이 헤딩으로 흘러주자 이승기가 침착하게 골네

트를 흔들었다. 3-1. 후반 추가시간 김신욱의 추가골이 오프사이드 노골로 선언됐으나 전북은 13승5무4패(승점 44)를 기록, 선두를 지켰고 광주는 끝까지 탈출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하지만 전북은 잃은 것도 많았다. 로페즈에, 엘리카르 1장이 추가된 측면 수비수 최철순도 경고누적으로 23일 FC서울 원정에 나설 수 없다. 공교롭게도 서울이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5-1 패승을 거두고 신바람을 낸 터라 공수 양면에서 공백이 생긴 전북으로선 몹시도 부담스러운 여정이 예고됐다. 최 감독도 "피해가 너무 크다"며 답답해했다.

한편, 강원FC 원정을 떠난 울산현대는 1-0으로 이겨 2위(승점 41)를 지켰고, 수원삼성도 전남 드래곤즈에 4-1 역전승을 거둬 3위(승점 39)를 지켰다. 포항 스틸러스를 3-0으로 격파한 대구FC는 승점 19로 인천(승점 18)을 밀어내고 10위로 올라섰다.

전주 |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신태용 감독 "K리그서 10명 이상 뽑겠다"

"K리그 일정 연기하더라도 조기소집 필요"

"명확하게 말하겠다. K리그 선수 10명 미만 선발은 없다고 단언한다."

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47) 감독이 대표팀 조기소집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신 감독은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타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강원FC-울산 현대전 하프타임에 기자들과 만나 "한국축구가 위기 상황이다. K리그 한 라운드를 연기해 대표팀이 훈련할 시간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다.

규정대로라면 대표팀은 8월 31일로 예정된 이란과의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 3일 전인 28일 선수들을 소집할 수 있

다. 대표팀은 이보다 1주일 정도 앞서 선수들을 모아 훈련할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8월 26, 27일로 예정된 K리그 경기를 연기하거나, 각 클럽팀이 대표선수 없이 경기하는 걸 양해해줘야 한다. 신 감독은 8월 26, 27일 경기 스케줄을 아예 연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면서 신 감독은 명확하게 조기소집을 원하는 이유를 밝혔다. "K리그 선수들이 대표팀에 적게 뽑히면 조기소집 훈련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질문에 신 감독은 "그 부분을 내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10명 미만으로 뽑는 일은 없다. 단언할 수 있

다"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소집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그는 이란과의 홈경기의 킥오프 시간이 오후 8시30분에 오후 9시로 변경된 것에 입장도 밝혔다. 신 감독은 "같은 날 중국-우즈베타스탄전이 열리는 데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차라리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해 선수들이 이란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칭스태프와 이란전 경기 시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오후 9시 킥오프는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훈련 스케줄 등 여러 부분에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창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한국축구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왼쪽)과 차두리 코치(오른쪽)가 19일 평창알펜시아축구점프타워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강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치유사의 마법...여름이 두렵지 않은 전북

지난 3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올리베이라 합류 부상 회복·몸 관리는 물론 잠재력 극대화 도움

현장 리포트

혹독한 더위가 한반도를 덮쳤다. 동남아시아를 연상시키는 스콜이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다. 휴대폰에는 국민안전처가 보낸 문자가 자주 도착한다. 폭염으로 인해 야외활동과 물놀이를 자제하라는 안전안내, 강·하천 지역의 갑작스런 수위상승을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야외 프로스포츠가 있다. K리그다. 하늘이 뚝뚝 뚝 대비가 쏟아져도, 엄청난 무더위와 끈적이는 높은 습도가 있어도 축구는 엄청난 변수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된다. 여기에 주중~주말 경기가 쉴 틈 없이 이어진다.

살인적인 일정에 피로가 누적되며 부상 빈도도 높다. 각 구단들은 선수단 관리에 비상이 걸

렸다. 그래도 전북현대는 여유롭다. 여름이 무섭지 않다. 올 3월 합류한 전문 재활 트레이너 지우반 올리베이라(36·브라질)의 힘이 있다. 물리치료사 1명, 스포츠 트레이너(AT) 2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의무 팀에 지우반이 가세하자 선수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주로 부상자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지우반은 지난 연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로페즈(27)의 재활을 맡다가 한국에 동행했다. 로페즈 이외에 끊임없이 발생하던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돕던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선수들의 영양 및 식단, 체중과 체지방 관리 등에 두루 도움을 주고 있다. '헤딩 머신'으로 통했던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29)이 특급 프리킥으로 재도약하는 데에도 지우반의 지원이 컸다는 후문이다. 한때 100kg에 가깝던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자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인 발



전북현대는 한여름 무더위가 두렵지 않다. 탄탄한 컨디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 원주군의 전북현대 클럽하우스에서 지우반(왼쪽) 재활 트레이너가 선수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현대

목 힘이 생겼다. 다른 녹색전사들도 직·간접적인 컨트론투를 받으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최강희(58) 감독은 물론이고, 파비오(45) 피지컬 코치를 비롯한 전북 코칭스태프도 광장히 만족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명문클럽 디나모 키예프에서 2시즌 가장 몸담은 지우반은 과거 호베르투 카를로스(은퇴), 카카(이상 브라질-올랜드 시티), 악셀 비첵(벨기에-뎀진 관잔) 등 전세계 유력 스타들의 재활을 도왔고 지금은 전북에서 활동 중이다. 1차 계약기간은 8월 종료되지만 선수단 모두가 좋아하는 만큼, 계약연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광주FC와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정규리그 22라운드 경기가 열린 1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 전북 관계자는 "팀 구성원 전부 지우반의 능력을 인정한다. 부상자들을 완벽하면서도 빠르게 회복시키니 의무 팀과 파비오 코치의 부담도 줄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문가 손길이 닿으니 선수단의 전력누수 기간도 길지 않다"며 활짝 웃었다.

정주 | 남창현 기자